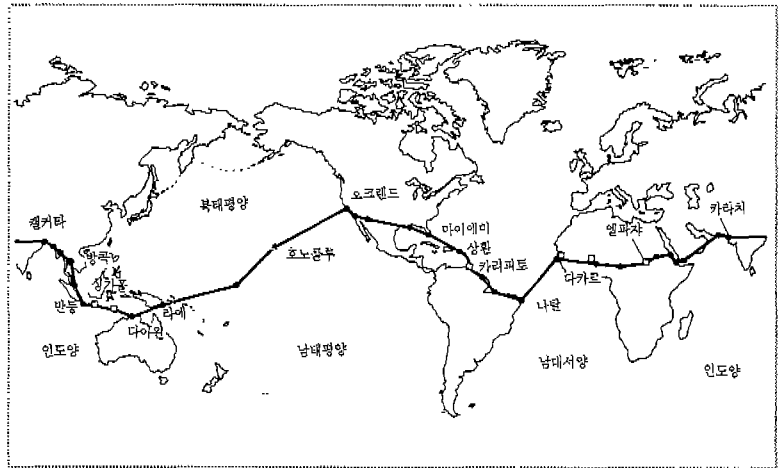


# 레이디 린디 아멜리아 이어하트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송 병 규  
공기역학실험실 석사과정

얼마전 한 한국의 젊은이가 경 비행기에 홀로 몸을 싣고 35일만에 전 세계를 일주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번 호에서는 젊음과 패기를 무기로 하늘에 도전했고 끝내는 하늘 속으로 사라져 신화를 남긴 하늘의 여인 아멜리아 이어하트의 이야기를 알아보기로 하자.



아멜리아 이어하트의 세계일주비행 경로(지도 그림)

대서양 횡단의 영웅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단독횡단한 지 일년 뒤인 1928년 이번에는 여성 최초의 대서양 횡단 기록이 세워졌다. 비행기로는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용감한 여성의 이름은 아멜리아 이어하트(Amelia Earhart)였다. 그녀는 1898년 7월 24일 캔사스주 애치슨에서 태어났으나 그녀의 어린 시절은 그리 단란하지 못했다. 그런 가정 환경은 그녀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만들었으며 그녀는 사진 찍기나 악기 연주 등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나타냈다.

## 하늘을 향한 꿈

성인이 된 그녀는 간호원이 되어

1차 대전에 참전했는데 여기에서 비행기에 눈을 뜨게 되었다.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병원에서 후송되어 온 부상병을 간호하던 이어하트는 병원에 위문 공연온 곡예비행팀 에어 나이트(Air Knights)의 곡예비행에 매료되었고 비행의 꿈을 간직하게 되었다.

이어하트가 비행을 배우려고 마음먹은 1920년대는 항공의 태동기로서 이제 막 항공 문화가 꽃을 피우는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행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범비행이 행해지던 때였다. 속도 기록, 고도 기록, 장거리 비행기록 등이 속속 세워지고 있었고 1차대전의 공중전에서 단련된 겁

없는 조종사들은 전쟁에서의 기동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곡예비행용 기동을 선보였다.

이런 사람들의 비행을 보면서 비행의 꿈을 키워나갔던 이어하트는 프랭크 호크(Frank Hawk)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고 최초의 비행을 경험했으며 이를 계기로 전업 여류비행사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 간호원을 그만둔 이어하트는 임시 우편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커티스 비행학교에서 네타 스누크(Neta Snook)에게서 비행훈련을 받았다. 이어하트의 비행교관이었던 네타 스누크는 여성최초로 조종사 면허를 딴 비행계의 대모였다.

비행 훈련을 받은 이어하트는 어

머니의 도움을 받아 'The Yellow Peril'이라는 작은 경비행기를 마련해서 본격적인 비행경력을 쌓아 나갔다.

## 운명을 바꿔준 전화 한 통

그러던 중인 1928년 6월 이어하트는 그녀의 운명을 바꿔 주게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포커 프렌드쉽 3발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보지 않겠느냐는 조지 푸트남의 전화였다. 이 비행은 2명의 남자 조종사와 한 명의 여자 승객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일종의 이벤트적 성격이 강한 시도였고 원래는 여자 승객으로서 피츠버그 철강의 상속녀인 에이미 게스트가 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안전을 염려한 가족들의 거센 반대로 에이미가 이 비행기의 탑승을 취소하게 되고 그 대타를 물색하던 조지 푸트남의 눈에 조종사 경험이 있는 이어하트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전화를 받은 이어하트는 떨듯이 기뻐했고 그녀가 제의를 수락한 지 한 달도 안된 1928년 7월 3일, 특별히 수상기로 개조된 포커 프렌드쉽 3발기는 그녀를 태우고 보스턴을 출발했다.

당시의 비행기의 성능과 항법 능력으로 대서양 횡단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1919년 앨콕과 휘튼 브라운이 북대서양

을 횡단 한 이후 그때까지 총 6명만이 대서양 비행에 성공했으며 1927년 한 해에만 19명의 조종사가 대서양 횡단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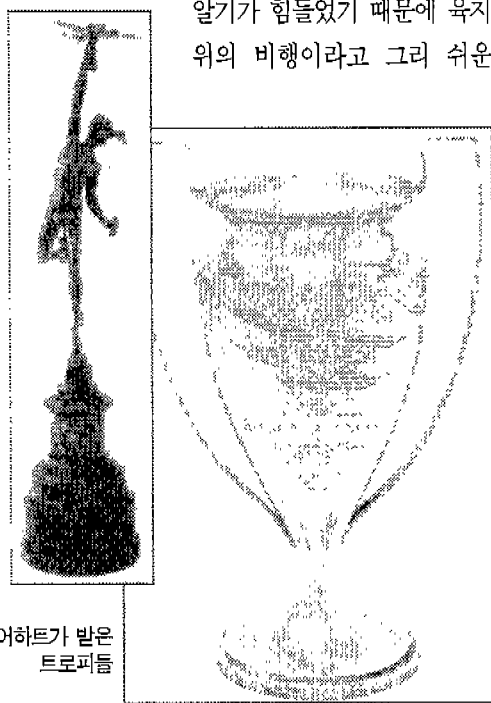
이는 아멜리아 이어하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승객 자격이었던 이어하트는 조종석 뒷편의 보조 연료탱크 뒤에 있는 항법계산용 탁자에서 쭈그리고 있어야만 했다. 옆친데 대친 격으로 비행기의 무전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위치를 잃어버린 그들은 해면 위를 낮게 날면서 눈에 띄는 배의 갑판 위로 오렌지에 묶은 편지를 투하했다. 그 편지에는 배의 선원들에게 지금 그들의 위치를 비행기에서 볼 수 있도록 배의 갑판에 크게 써달라는 부탁의 글이 들어 있었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 여류 조종사로서의 명성

천신만고 끝에 목적이인 웨일즈에 도달한 이어하트는 여류 조종사로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명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가 느낀 것은 성취감이나 영웅의식이 아니었다. 그 비행

에서 그녀는 단지 꺾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조종석 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일밖에 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공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신의 존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녀의 명성을 이용하여 코스모폴리탄 등의 잡지에 '당신의 딸이 조종사가 되겠다면?' 등의 글을 기고하면서 항공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28년 9월 그녀는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뉴욕을 출발해서 로스앤젤레스로 비행해갔다. 다시 뉴욕으로 되돌아왔는데 이것은 최초의 미대륙 왕복횡단 비행의 기록이 되었다. 항법 시설이 전무했던 당시에는 비행 중에 자신이 어느 마을 상공을 지나고 있는지 조차 알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육지 위의 비행이라고 그리 쉬운



이어하트가 받은 트로피들



대서양횡단에 최초로 성공한 린드버그와 그의 부인



유성처럼 사라져간 아멜리아 이어하트의 모습

것이 아니었다. 한번은 그녀가 보던 지도가 바람 때문에 조종석 밖으로 날아가 버려서 지도를 사려고 중간에 착륙한 적도 있었다.

차츰 그녀는 항공계의 영웅이던 린드버그만큼 유명해졌고 어느덧 사람들은 그녀를 레이디 린디(Lady Lindy)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녀의 명성 만큼이나 활동도 활발해져서 1930년 Women's Air Derby라는 여성 비행경주에서 그

녀는 3km 코스 속도기록, 100km코스 속도기록, 화물탑재 상태에서 속도기록의 3관왕이 되었다.

### 다시 도전한 대서양 횡단 비행

그녀의 명성이 높아만 갈수록 그녀에게 미련이 남는 것이 있었다. 바로 1928년 꺾다논 보릿자루처럼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대서양을 횡단했던 일이었다. 이 미련을 없애고자 그녀는 다시 한번 대서양 횡단 비행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승객이 아닌 조종사로서. 이를 위해서 그녀는 그녀의 애기(愛機)인 빨간색 록히드 베가의 연료탱크를 늘리는 등의 준비작업을 끝내고 1932년 5

월 20일 뉴펀들랜드를 출발했다. 그러나 그녀의 대서양 횡단 비행동안 날씨는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의 앞길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 이어하트의 작은 비행기는 가랑잎처럼 흔들렸다.

날개의 결빙 현상으로 양력을 잃은 비행기는 자꾸 아래로 쳐졌고 심지어는 난기류에 휘말려 한꺼번에 3천피트씩이나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마침내는 엔진의 이상 진동으로 인해서 최종 목적지인 파리에 조금 못미친 북 아일랜드 지역에 불시착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의 15시간의 대서양 횡단 비행은 세 가지 기록을 남겼다. 가장 빠른 대서양 횡단 비행, 여성 조종사로서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 여성 혼자서 시도한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의 기록은 지금도 기네스 북에 올라 있다.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비행에 성공한 이어하트에게 모든 언론의 찬사가 빗발쳤다. 그녀는 교황을 알현하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초청받을 정도의 명사가 되었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국립지리학회 의 금장 메달을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 이어하트의 마지막 비행

1년에 150회 이상의 강연을 하

러 다녔고 명실상부한 항공계 최고의 여류 명사가 된 이어하트는 이번에는 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바로 세계일주 비행이었다.

그녀는 세계일주비행을 위해서 강력한 2개의 P & W 엔진을 장착한 록히드 일렉트라기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 비행을 조종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와 좀 더 친숙해질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계획이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비행을 강행했다. 더구나 옆친데 옆친격으로 그녀가 고른 항법사 프레드 누난은 알콜중독자였다.

세계일주 비행의 첫 시작은 칼리포니아에서 하와이로 가는 구간이었고 1937년 3월 17일날 시도되었다. 첫 비행은 매우 순조로웠지만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이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서 그녀의 애기 록히드 일렉트라기는 수리비 2만5천 달러라는 견적을 받았다. 이어하트는 눈물을 머금고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세계 일주는 6월 1일 재 시도되었는데 이번에는 먼저반과 반대방향으로 지구를 돌기로 했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를 출발한 그녀의 록히드 일렉트라기는 출발 후 한 주동안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에 도착했고 다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들어갔다. 6월 18일 그녀

는 켈커티를 출발했는데 여기에서 심한 폭우로 고생하기도 했다. 미얀마, 싱가포르, 자바, 호주 등을 경유하여 남태평양 서남부의 뉴기니아에 도착한 것이 6월 30일이였다. 그때까지 그녀는 22만 마일을 비행했으며 적도를 3번 종단했고 22회 착륙했다. 그때까지 그녀의 비행은 비교적 순탄했다고 그녀가 뉴기니아의 라에에서 쓴 글에서 밝히고 있다.

7월 2일 오전 10시 뉴기니아의 라에를 이륙한 이어하트는 길을 잃어 목적인 호우랜드섬을 찾지 못하고 방향하다가 '연료가 부족하다'라는 무전 연락만을 남기고 전설로 사라졌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비행기의 잔해조차 찾을 수 없었기에 그녀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항공계의 큰 전설로 남아 있는 그녀는 아마 그녀가 그토록 동경하던 하늘에서 행복하게 사라졌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레이디 린디는 이어하트의 애칭이었다



그녀의 록히드 베가를 둘러싸고 있는 수만은 군중들